

## 요한 칼빈의 기독교 음악론\*

강경립

(안양대학교 신학과 부교수)

## I

1450년에서 1600년까지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발생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지적 활동과 예술에 있어서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종교적 의미에 있어서, 마틴 루터의 지도하에 그 절정에 도달한 종교개혁은 신학적으로나 음악적으로 모든 추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중간의 사제직이라는 장벽이 허물어진 것이다. 종교개혁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진리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됨으로써 사도 시대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많은 기쁨을 다시 체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새롭게 발견된 개인적인 기쁨과 더불어 자신들의 모국어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솟아나는 것은 매우 당연

※ 본 논문은 1995년에 기독교사학연구소에서 펴낸 「기독교사학연구」에 “요한 칼빈의 음악이해: 「제네바 시편 성가집 서문」 외의 다른 자료들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것으로서 다소 수정보완된 것임을 밝히둔다.

하다고 하겠다. 회중의 찬송가와 성가 부르는 이 새로운 운동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 마틴 루터의 동료들이든 적대자들이든 하나 같이 가끔 언급하기를, 루터는 자기의 설교를 통하여 회심자를 얻기 보다는 회중의 노래부르기를 활용하고 권유함으로써 더 많은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루터 자신은 음악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선물 가운데 하나이며, 청년들이 음악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설교자로 임직받아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 시기에 또 다른 주요한 개혁가들이 있는데, 바로 쾰빙글리요한 칼빈이다. 그들 역시 루터만큼 강도높은 것은 아니지만, 회중의 노래부르기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인물들이다. 칼빈은 영혼이 말씀에 숨겨져있는 의미에 주목하는 것보다 귀가 소리의 화음에 더 주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제네바 시에 한 법령을 공포하기를, 어린이들은 주간 학교에서 반드시 음악을 배워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곳에서 시편성가 부르기를 완전히 배웠을 때, 주일마다 공예배에서 바르게 노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 개혁가들은 성경말 가사에 붙인 곡들만이 예배시에 알맞으며, 시편의 운율적 번역만이 개혁파 교회 내에서 사용되고, 오로지 제창으로 노래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생각했다.<sup>1)</sup>

그런데 루터와는 달리 칼빈은 종종 예술과 음악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인물로 비쳐지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예술을 “하나님의 축복”(benedictio Dei)으로 간주하였으며, 모든 “성령의 은사들”(praeclara spiritus dona) 즉, “풍부한 은사들”(excellentes gratiae) 내에 깃들어 있는 “신적 빛의 광선들”(divinae lucis radii)로 생각하였다. 칼빈은 그러한 성령의 현현을 부정하지 않았다. 만약 칼빈이 교회 내에 모든 “繪畵와 彫像들”, 그리고 “무익하고 가벼운”(levia et vana)<sup>2)</sup> 음악을 배척

1) Kenneth W. Osbeck, *The Ministry of Music: A Complete Handbook for the Music Leader in the Local Church* (Grand Rapids, MI: Kregel Publications, 1961), 21~2.

2) 칼빈의 사무엘상 18:6 주석 참조.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예술 특히 음악에 대한 그의 몰이해 때문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이 음악을 남용 내지 오용한 것에 대한 항거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칼빈이 예술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면을 보이게 된 역사적 환경을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칼빈의 음악관을 이해하는데 용이할 것 같다. 첫째, 개신교 종교개혁 이전의 노래부르기에 대한 교회 공의회들의 규정이다. 공의회들이 교회 음악에 대하여 내린 결정들 가운데서 우리는 칼빈의 생각과 동일한 것 몇 가지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578년의 Auxere 공의회는 교회 예배에서 세속적인 노래들을 거부하며 또한 성소(聖所)에서 젊은 여인들이 노래부르는 것을 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교령의 라틴어 원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canticum*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단어는 “시편들”이 아니라, 아마도 기쁨과 슬픔과 기독교의 사랑과 고양 등의 주제를 담고 있는 성가들과 같은 “무드 노래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sup>3)</sup> 그러한 노래들은 사제가 집전하는 의례적인 예배에 부적절한 것으로 교부들에게 비친 것이다.

589년에 개최된 톨레도 공의회는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춤추는 것과 노래하는 것을 금지시켰다.<sup>4)</sup> 이후에 그 공의회는 “무질서하게 소리치름으로” 노래하는 대신에 “상당한 주의와 위엄을 갖추고 그들 자신의 노래를”(cum magna attentione compunctioneque) 부르도록 사제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

3) Edward Patte, “John Calvin and Choral Music,” *Choral & Organ Guide* 18 (April 1965), 7.

4) “Exterminanda est...consuetudo...ut populi...saltationibus ac turpibus invigilent canticis.” 같은 곳에서 재인용.

공의회는 결정이 팔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단호한 수단은 취해졌다. 로마 교회는 교회의 합창 음악의 양식을 규정하는 일련의 규칙들을 입안하였다. 그 규칙들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눈에 띄게 해서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노래는 과장하지 말고 단순하게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7세기 정도 지나 칼빈에게서 우리는 같은 노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특유한 어조로 교회 예배 중에 “김승들처럼 노호하고 노새들처럼 울부짖는” 자들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sup>5)</sup>

키프리안은 기독교인들은 “온건한 목소리로”(cummodesta voce) 노래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목소리의 質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이다.”(quia Deus no vocis, sed cordis auditor est.)라고 선언하였다. 제롬 역시 목소리의 양이나 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반면에 어거스틴은 교회 예배에서 노래하는 것이 질적으로 어설픈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하지만 어설픈게는 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어설픈 노래로 인간들이 당신의 귀를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하면서 신자들을 고무시켰다. 칼빈은 위대한 교부들과 공의회들의 전통과 동일한 노선에 서 있다고 하겠다. 그는 “우리의 목소리로 보다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극장 공연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sup>6)</sup>

둘째, 슈트라스부르의 공동체와 시편 부르기다. 아주 역동적인 신학자이며 종교 개혁자인 부처의 지도하에 있던 슈트라스부르는 독일 교회 예배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고 있었다. 칼빈은 그들에게 프랑

---

5) 같은 곳.

6) 같은 곳 8.



스 시인 클레망 마로(Clement Marot, 1495-1544)가 번역한 8개의 시편을 부르도록 가르쳤고, 그 자신이 다섯 편을 더 번역하여 첨가시켰다. 따라서 프랑스 피난민들은 고국 프랑스에서도 예배시에 감히 불러보지 못했는데, 이곳 슈트라스부르에서 모국어로 된 찬송을 부를 수 있어서 그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알사스와 독일의 멜로디들을 배워 사랑하게 되었지만, 외국어로 된 합창의 가사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여튼 칼빈 덕분에 그들은 모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칼빈의 천재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프랑스 문자의 명료성과 독일 음악의 하모니가 놀랍게 어울어진 첫 예전서가 슈트라스부르의 프랑스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다.<sup>7)</sup>

셋째, 16세기에 대중성을 띄게 된 시편성가들이다. 16세기 초에 일어난 이상한 현상은 다윗의 시편들이 프랑스어로, 때로는 아주 세련된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이 시편들 중 몇 개는 암송되기도 하고, 대화 속에 인용되기도 하고, 연가로서 불려지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다윗의 시편은 그 당시 음악에 쉽게 적응되거나 세속적인 가락에 가사로 채택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클레망 마로가 번역한 시편들은 인쇄되어 나오자마자 곧 널리 보급되었다. 그리하여 시편들은 궁정에서도, 들판에서도, 선박에서도, 심지어 감옥에서도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었다. 이전 시대에도 시편 부르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제롬도 시편을 노래하는 것을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다고 하며, 그레고리도 비록 시편 속에 담겨진 영적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지만 사람들이 시편을 노래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개신교 종교개혁을 위해 길을 닦는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시편들을 즐겨 불렀던 것이다. 16세기에는 더 활발히 불려졌다. 1539년에서 1540년 걸쳐 마로가 번역한 시편들은 곧 성공을 거두었다. 소르본느 등지에서 마로를 반대하는 기운이 세차게 일자, 마로는 제네바로 도

---

7) 같은 곳.

100 / 신학지평 제11집 · 1999 가을 · 겨울

망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칼빈의 환영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제네바시의 어른들은 마로가 이전에 만들었던 몇 가지 가사가 플레이보이적이라하여 반대하였다. 마로가 떠난 공백을 메꾸기 위해 칼빈은 베자, Eustorg de Beaulieu, 부르즈와(Loys Bourgeois) 등을 시켜 시편 번역 작업을 계속 하게 하였다.<sup>8)</sup>

## II

칼빈은 「제네바 시편 성가집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음악에 대한 그의 생각<sup>9)</sup>을 다른 저작물에서도 똑같이 피력하고 있다. 그는 고린도전서 14장 7-9절을 주석하면서 음악의 위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음악 연주들에 관한 미묘한 논의는 없다. 이는 바울이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 즉,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트럼펫 소리를 가상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펫은 영혼을 불태울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므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말(馬)들까지도 흥분시킨다. 그러므로, 스파르타인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군대가 너무 격렬하게 돌진하면 안되므로, 전투에 나가기 전에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플루트 연주를 선호했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더구나, 우리 모두는 음악의 위력이 사람들의 감정을 감동시키는 데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가를 체험했으며, 플라톤은 국가의 도덕을 형성시키는 데 음악보다 더 가치있는 것은 없다고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sup>10)</sup>

8) 같은 글, 9-10.

9) 拙稿, “제네바 시편 성가집에 나타난 칼빈의 음악관”, 『論文集』(대신대학교, 1994) 참조.

10) “Porro de musicis modulationibus non est hic subtilius disputandum: quia Paulus id tantum sumpsit quod vulgo percipitur: sicuti clangor tubae de

플라톤과 마찬가지로,<sup>11)</sup> 칼빈은 음악의 유용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사야 5장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의 노래를 부르리라.”는 말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공히 이 모든 사건들이 언어로 통하여 전달되게 하기 위해, 모세와 다른 이들이 노래를 지었음을 알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만일 한 교리가 더 단순하게 가르쳐졌더라면 보다 더 잘 알려질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이사야는 이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더 큰 사악한 꼴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의심할 나위 없이, 그는 통상적으로 노래들이 대단히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지듯이, 장엄함과 상당히 조화있는 말로써 그것을 다루었다...그러므로, 그는 그 말(言)들을 작곡하여 그 소리와 리듬이 기억을 도우며 그들의 마음을 끌 수 있도록 하였다.”<sup>12)</sup>

---

quo mox loquitur. Est enim sic compositus ad inflammandos animos, ut non homines tantum, sed etiam equos expergeficiat. Quamobrem Lacedaemonios in conserendis praeliis usos potius fuisse tibia, tradunt historiae, ne exercitus nimis fervido impetu in hostem primo congressu irrueret. Denique omnes experimur quanta sit vis musicae ad sensus hominum movendus: ut Plato non abs re musicam ad mores civitatis huc illuc flectendos plurimum valere tradat.”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XLIX, ed. by Guilielmus Baum Eduardus Cunitz Eduaedes Reuss(New York and London: Johnson Reprint Corporation, 1867), cols. 519-20. 이하부터는 CO로 약칭한다.

11) Plato, *The Republic*, III, 401E 참조; tr. H.D.P. Lee (Penguin Books, 1973), 141-42.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음악의 에토스(ethos)론을 부르짖었는데 즉, 음악은 그 특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인간의 의지에 감화를 끼친다는 것이다; Karl H. Womer, 『音樂의 歷史』, 김현순역(서울: 국제출판사, 1983), 69-70 참조.

12) “Quemadmodum a Moses descriptum esse canticum videmus, et alia

음악보다는 오히려 텍스트(歌詞)에 우선적 초점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속에 확고히 개념들을 새기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배열된 소리들과 리듬들의 가치를 칼빈이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음악의 위력에 대한 칼빈의 단언에 의문이 제기된다. 즉, “이것은 음악본래의 위력인가? 아니면 음악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위력을 지니는가?”이다. 전자는 쾰빙글리의 입장이다.<sup>13)</sup> 뒤서는 그와 같은 입장으로 칼빈의 「제네바 시편 성가집 서문」(이하 “서문”으로 표기함)을 읽고 있다. 이같은 위력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음악을 잠재적으로 위험하게 만든다.<sup>14)</sup> 이같은 해석에 따라, 칼빈은 비록 그가 쾰빙글리와는 달리 음악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있지만, 인간의 손에서 음악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쾰빙글리와 더불어 믿고 있다.<sup>15)</sup>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한 다윗의 이야기에 관한 칼빈의 논의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

---

pleraque, ut et privatim et publice omnia his vocibus personarent. Sic enim celebrior fit doctrina, quam si simplicius traderetur. Hac igitur ratione Isaias canticum hoc composuit, ut populo foeditatem suam magis conspicuam faceret. Nec vero dubium, quin ista magnifice et magis sonora voce tractarit, sicuti etiam magis exquisito artificio carmina componi solent...Sic igitur composuit istas voces, et ad eas allusit, ut earum sono et rythmo memoriae consuli posset, iisque animi allicerentur.” CO, XXXVI, 102.

13) 위의 책 221쪽을 보라. See Charles Garside, “Some Attitudes of the Major Reformers Toward the Role of Music in the Liturgy,” *McCormick Quarterly* 21 (1967-1968), 153-57.

14) “Allein so sehr Calvin die Musik damit in ihrer Wirkung auf das menschliche Gemüt also sittliche Macht anerkennt und begrüsst, macht er auf Gefahren aufmerksam.” Büsser, *Calvin und die Kirchenmusik*, 100: cited by James Miller, “John Calvin and the Reformation of the Church in the Sixteenth Century” (Claremont Graduate School Ph.D. Dissertation, 1991), 252.

15) James Miller, 같은 글, 252-53.

한 비판적 논증이다. 다윗은 부름을 받아, 사울이 상쾌하게 낮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히려고 부린 악신(惡神)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야말로 “큰 은혜를 힘입어” 수금을 연주하였다는 것이다.<sup>16)</sup> 칼빈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음악이나 하프의 위력이 악신들을 쫓아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가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은 마술과 주문의 냄새가 난다. 더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미치게 하는 영(靈)으로써 누구를 괴롭혔다면, 우리는 이 마귀가 수금 소리에 의해 축출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게될런지 의심스럽다. 역시 다윗은 신적인 선고를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사울이 모반때문에 제왕의 영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악신의 괴롭힘을 받았음을 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악신을 스스로 제거시키려고 투쟁할 수 있으며, 마치 그가 징계받아 마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가락맞는 노래나 수금 연주를 통해 그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는가?<sup>17)</sup>

---

16) “Davidem vero tanta gratia citharam pulsasse, ut Sauli bene fuerit, et ab eo spiritus malus ad tempus recesserit.” Hom. LIX on Sam. 16:13-23; CO, XXX, 181.

17) “Hic vero in primis quaeri potest: An tanta sit vis musicae, vel citharae, ut spiritus malos possit depellere: quod ista quaedam veneficii et incantationis species esse videatur. Nam, quaeso, si quem Deus spiritu furoris turbaverit, an citharae sonitu depelli posse diabolum arbitramur? Praeterea, Davidne divinae sententiae reluctaretur, Saulen enim vidimus propter rebellionem excidisse regia dignitate: et a spiritu malo afflictum, quod ab ipso Dei spiritus recessisset: quare ergo David malum ipsius allevare nititur, vitamque prorogare harmonico musices cantu, aut citharae pulsu, quasi videretur impedire velle quominus in illum Deus animadverteret, qui dignissimus erat castigatione?” 같은 곳

칼빈의 결론은 명백하다:

“여기서 무엇이 참된지 정말로 자명해진다: 악신들은 즐거운 음악이나 현악기들의 소리들에 의해 축출되고, 그것들 자체의 효과에 의해 광기는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법칙이 될 수 없다.”<sup>18)</sup>

사울의 종들은 음악은 정말로 우울한 사람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일반 상식을 따라 행동했다. 그러나 그같은 수단은 그 자체로 그 근본적인 무질서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대해서 음악은 유익할 수 있다는 것과 괴로움을 당한 영혼이 당분간 상쾌해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치료가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음악이 괴로움을 당하는 영혼을 상쾌하게 하며 회복시킬 수 있으리라는 것은 진실로 비합리적인 것이 아닌데, 이는 악신이 유쾌한 음악에 의하여 축출되거나 기세를 누그러뜨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병 그 자체는 그와같이 더 이상 사람 안에서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음악이나 수금이나 다른 악기 소리에 의해 정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sup>19)</sup>

##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18) “Et sane re ipsa verum est, et non oportet haec in generalem regulam trahi, harmonico concentu vel vocis vel fidium posse diabolos depelli, vinque ipsorum et furorem impediri.” 같은 곳
- 19) “Certum autem est adversus istiusmodi morbos melacholicos plurimum posse harmonicos concentus: et afflictum animum posse recreari et ad tempus refici: sed istud non est perpetuum...Sane quod ad musicam attinet, non caret ratione quod animus afflictus recreetur et reficiatur, quoniam mali apprehensio harmonico concentu tolli potest, vel mitigari: at non ipse morbus, qui non ita vinci musica vel citharae vel alterius instrumenti sono potest, ut non amplius saeviat in hominem.” 같은 글, cols. 181-82.



칼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함으로써 그의 결론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쟁들로부터, 사울의 신하들은, 그들이 수금 잘 탈줄 아는 사람을 찾으라고 제안했을 때, 이성이나 사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적 견해로 왕에게 이러한 충고를 드렸음이 드러난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이러한 충고의 좋은 결과를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경솔하게 모방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울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주인들에게 자기들의 사랑과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 자신들이 칭찬받기 위해, 그들 입에서 나오는 대로 통상적으로 지껄이는 정신(廷臣)의 방식으로 이러한 일을 우연히 행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울을 괴롭히는 악신이 다윗의 수금의 진동에 의해 기세가 누그러지게 된다고 말해질 때, 우리는 이러한 충고가 본래 유용했다고 보지만, 여호와와 특전과 호의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사울의 광기가 다윗의 흥겨운 수금 소리에 의해 화해된 이 특별한 경우로부터, 다윗의 수금은 광기를 치유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누가 생각할 것인가? 악신들을 쫓아내거나 불러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수금의 위력도, 음악의 위력도, 또 다른 종류의 악기의 위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것들에게 이러한 성취의 가능성이 주어졌던 것이다.<sup>20)</sup>

---

20) “Ergo ex istis apparet servos Saulis non ratione, neque consilio, sed ex vulgata hominum opinione consilium istud regi suppeditasse, quum suaserunt, ut virum aliquem quaereret qui bene citharam pulsaret. Deus vero licet consilio isti felicem successum dederit, tamen non temere imitandum est: quandoquidem temere Saulis servi illud inierunt: ut solent aulici ad gratiam sibi conciliandam, suumque amorem et benevolentiam erga dominos testandam, quidquid in buccam venerit effutire. Porro quum dicitur malum quo Saul affligebatur allevatum Davide citharam pulsante,

칼빈은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악신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음악 본래의 위력임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이것은 제한된 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의 효과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영구히 변화시킬 수 없으나, 하나님은 사울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음악의 고유한 위력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sup>21)</sup>

칼빈의 작품들 가운데, 역시 음악의 위험한 오용(誤用)에 대하여,

---

conspicimus profuisse ipsi consilium illud, sed speciali privilegio et favore Domini: ...Ecquis igitur ex hoc facto speciali, quo Saulis furorem harmonico Davidis concentu fuit placatus, existimet vim quandam sanandi furorem habuisse Davidis citharam? Sane non ea fuit vis citharae, non musices aut aliorum organicorum instrumentorum, ut pellere diabolos et coniurare possent: sed Dei voluntas efficaciam illis ad hoc efficiendum dedit.” 같은 곳.

사울의 신하들이 광기를 음악으로 치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은 오래된 전통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고대 그리스인들은 “음악이 병을 고치고, 육체와 정신을 순화시키며, 자연계 안에서 기적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Donald J. Grout, 「西洋音樂史」(上), 김균진 외역(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3.

- 21) Grau는 이 귀절에 대하여 주석하면서, 칼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의 사역을 제외하고서는 그 어떤 음악의 위력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see *Calvin's Stellung zur Kunst*, 34-35. Clive도 이와 유사한 분석을 하고 있다: “Calvinist Attitude to Music,” XIX, 87. 그런데 그 어떤 주석가도 칼빈의 미묘한 입장을 붙잡아 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칼빈이 음악을 하나님의 목적의 도구로 보고 있으며, 노래하는 것이나 악기 연주가 가지는 어떤 마술적인 힘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은 인간의 영혼에 호소하는 위력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고안하셨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심지어 사울의 신하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칼빈은 이 상식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음악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왜곡시킬 힘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칼빈의 관심은, 사울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이 다윗의 연주에 의해 누그러졌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칼빈이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상황에서의 음악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치유 효력을 나타내도록 허락되었던 것이다; see Miller, 앞의 글, 255-56.

특히 외설스러운 텍스트들에 관하여 자주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음을 본다.

“...우리는 방탕하고 부도덕한 음악들에 관하여 역시 생각해야만 한다고 본다. 한 소녀가 경솔한 사랑을 노래하는 데 익숙하다면, 그 소녀는 창녀가 무엇인지도 알기도 전에 창녀가 될고 말 것이다.”<sup>22)</sup>

칼빈의 이같은 말은 그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음악 에토스론을 숙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오랜 시간 동안 미친한 감정을 격발시키는 그런 음악을 습관적으로 들으면 그 사람의 모든 성격은 미친한 형태로 그 모습을 바꾸게 된다”<sup>23)</sup>는 것이다.

그런데 칼빈에 따르면, 당당시 가톨릭의 의식들이 풍부하게 증명해 주듯이,<sup>24)</sup> 교회 음악 조차도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은 무슨 이익과 위안이 있는지 우리가 알만한 그와 같은 시편 부르기를 통하여 교회를 점거해 왔는데, 그들은

---

22) “De l aussi nous voyons ce qu'il faut estimer de toutes les chansons dissolues et de paillardises. Si une fille s'accoustume (comme cela est tout commun) chanter de folles amours, on en fera une paillarde devant mesmes qu'elle s'ache que c'est de paillardise.” Sermon 32 on Eph. 4: 29-30; CO, LI, 646. Cf. Comm. on Eph. 5: 18-19; CO, cols. 220-21: “quia ut plurimum publicae et vulgo usitatae cantiones sunt de rebus frivolis, adeoque parum castis.”; Comm. on Col. 3:16; CO, LII, cols. 124-25.

23) Aristotle, *Politics*, 8, 1340(a,b): Grout, 앞의 책, 8에서 재인용.

아울러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Platon, *Laws*, II, 665, 668-70, 812C; *Republic*, III, 401E.

24) 제1부에서 언급되었듯이, 사실상 이미 12세기부터 복잡한 음악에 대해 또한 가수들의 묘기부리기에 대해 교회 자체내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 이유는 첫째, 이러한 관습은 회중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미사를 단순한 음악회로 이끌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예전(禮典)의 말이 불명확하고 예전적선율이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Donald J. Grout, 앞의 책, 139를 보라.

참된 노래들인 시편 성가들을 알아들을 수 없이 자기들끼리 중얼거리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sup>25)</sup>

“만약 그들이 수많은 악기들을 한 곳에 모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갈데아 사람들에게 의한 악기 사용과, 경건을 고무시키는 데에 하나님께서 악기를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구약의 유대인들의 악기 사용과는 대조적이다.<sup>35)</sup> 심지어 춤까지도 하나님의 예배에 허락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춤을 사용하였으며; 그것은 품위있고 정숙한 환희였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

---

25) “Oultre par cela on Pourra cognoestre de quel bien et de quelle consolation le pape et les siens ont priue lesglise, quant il ont applicques les pseaulmes, qui doibuent estre vray champs spirituel, a murmurer entre eux sa aucune intelligence.” 1537 *Articles*: CO, Xa, 12. Cf. *De Necessitate Reformandae Ecclesiae*: CO, VI, 470. 아울러 시편 150편 주석을 보라: “Neque etiam abs re Deus sub lege olim exegit multiplices illos cantus ut a vanis imo perversis oblectamentis quibus nimis cupide dediti sunt homines, ad sanctam utilemque laetitiam traducere suorum animos.” CO, XXXII, 442; see Wencilius, *L'Esthetique de Calvin*, p.265. Cf. *Serm.* 2 on Job 21:7-12; CO, XXXIV, 228: “...: mais plustost que nous advisions de nous restraindre, et d'avoir pién tousiours devant les yeux, afin que nostre joye soit benite de lui, et que nous ne laissions pas de tousiours aspirer la hant an ciel. Voila donc comme il nous faut appliquer toutesnos resionissances a ce but, qu'il y ait une melodie qui resonance en nous, par laquelle le nom de Dien soit benit et glorifie en nostre Seigneur Iesus Christ. Or nous-nous prosternerons devant la face de nostre bon Dien, etc.”: see also *infra*, 325-27

26) “Quantum attinet ad musica instrumenta, fuit ratio populi Dei, alia autem Chaldearum... Chaldaei autem putarunt se Deo satisfecisse si congererent multa musica instrumenta. Nam aestimabant Deum ex proprio sensu, quemadmodum fieri solet.” *Lect.* on Dan. 8:14; CO, XL, 625; see Wencilius, *L'Esthetique de Calvin*, 252, 259. 구약의 음악에 관한 칼빈의 비판에 대하여 진전된 논의를 위해서는 *infra*, 331-32을 보라.

배의 부분인 한에서는 거룩하기까지 했다.”<sup>27)</sup>

칼빈은 음악의 정당한 사용 두 가지에 대해 그 윤곽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예배와 인간의 이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음악의 본성은 그것이 종교의 의식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것과 만약 그것이 사악한 유혹들과 그리고 인간들을 보다 나은 사역들에서 유혹하고 그들을 허무함 속에 가두워 놓는 어리석은 기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때에만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것이다.”<sup>28)</sup>

칼빈은 그 “제네바 시편 성가집 서문”을 재차 강조하면서 기독교 음악은 외설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무용함도 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는 교화(敎化)를 우선적인 표준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올려 놓고 있다.

(골로새서 3:16에 대하여) 부연하자면 다음과 같다: ‘익살스럽고 경솔한 농담들과 우스개소리들을 통하여 어리석은 기쁨을 구하는 불신자들을 떠나시오. 여러분의 말은 진지할 뿐 아니라, 즐겁고 기운찬, 즉 유익한 것을 함유하도록 하시오. 외설스럽고, 정숙치 못하며, 품위 없는 노래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들과 노래들을 부르시오.’ 더구나 그는 이 세 가지 조건 아래에 모든 종류의 노래를 포함시키고

27) “...et habebant etiam Israelitae suos choros, ubi canebant Dei laudes: et haec erat casta laetitia, imo etiam sacra: quia erat species cultus Dei.” Lect. Jer. 31:13; CO, XXXVIII, 663; see Bieler, *La Pensée économique et sociale de Calvin*, 447. 그러나 당시의 춤들은 마귀와의 교통 수단으로 보였던 것이다. See Sermon on Deut. 5:18; CO, XXVI, 340-41: “...Or on sait bien que les danses ne peuvent estre sinon des preambules paillardise, qu’elles sont pour ouvrir la porte notamment Satan, et pour crier qu’il vienne, et qu’il entre hardiment.”; see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175.

28) “...sed musicae talis est ratio, ut pietatis officiis accomodari, et hominibus prodesse queat: absint modo vitiosae illecebrae: absit etiam inanis oblectatio, quae homines a melioribus exercitiis abductos in vanitate occupet.” Comm. on Gen. 4:20-21; CO, XXIII, 100.

있다. 그것들은 이런 식으로 구별되는데 즉, 시(詩)는 몇 가지 악기의 반주로 노래하는 것이며; 찬미(讚美)는 그것이 단순히 목소리로 불려지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불려지든지 하는 찬양의 노래이고; 신령한 노래는 찬양만이 아니라 권고와 다른 내용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래들이 영적이기를 바라며, 천박하며 무가치한 작품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sup>29)</sup>

기독교 음악의 이같은 성질은 예배에서 사용된 노래들에 있어서 는 이중적으로 중요하다. 칼빈은 그 “제네바 시편 성가집 서문”과 동시에 교회의 노래부르기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책은 1543년 판의 「기독교 강요」이다. 이같은 언급은 이후의 계속된 판에서도 반복되고 있다.<sup>30)</sup> 칼빈이 기도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고린

29) “Ac si diceret: Incredulis ineptam hanc oblectationem relinquitte, quam ex ludicris et nugatoris iocis ac facetiis capiunt. Vestri autem sermones non severi modo, sed etiam laeti et hilares, utilitatem aliquam contineant. Pro obscenis illorum cantilenis, aut saltem parum modestis et gravibus, decent vos hymni et cantica, quae resonent laudem Dei. Porro sub his tribus nominibus complexus est omne genus canticorum. Quae ita vulgo distinguunt, ut Psalmus sit in quo concinendo adhibetur musicum aliquod instrumentum praeter linguam. Hymnos proprie sit laudis canticum, sive assa voce, sive aliter canatur. Oda non laudes tantum contineat, sed paraeneses et alia argumenta. Spirituales autem Christianorum cantiones esse vult, non ex frivolis et nihili nugis compositas.” Comm. on Col. 3:16; CO, LII, 124-25.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에 대한 칼빈의 정의들은 바울이 사용한 용어를 명료하게 하기를 엄격히 시도하고 있으며, 그 자신이 즐겨 쓰는 어법으로 나타내지 않으며, 그것은 어려운 과업임을 시인하고 있다. 즉 “Quid differant hymni a psalmis, et quid rursum psalmi a canticis, difficile est certa definitione tradere.” Comm. on Eph. 5:18-19; CO, LI, 221.

30) See *supra*, 131-32. 더 이전의 본문에 대해서는 CO, I, 921을 보라. 이 부분은 1559년의 라틴어 판과 동일하다.



도전서 14:15과 골로새서 3:16에 근거하여 사도 시대에 이미 행하여진 노래부르기를 언급하고 있다.

“앞 귀절에서 그는 우리가 반드시 목소리와 마음으로 노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후의 귀절에서 그는 경건한 자들이 서로서로를 상호 교화시키는 신령한 노래들을 권하고 있다.”<sup>31)</sup>

그런데 그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암브로즈가 서방 교회에 노래를 도입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sup>32)</sup> 그러나 칼빈의 핵심은 온건성의 필요에 대한 역설에 있다.

그리고 만약 곡조가 하나님과 천사들이 보시기에 적합하도록 장엄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율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 신성한 행위에 위엄과 은혜가 더해질 때, 많은 사람을 기도하도록 참된 열심과 열정을 불러넣는 그 때에야 가치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가사의 영적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보다 우리의 귀가 곡조에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sup>33)</sup>

31) “Priore enim loco voce et corde canendum esse praecipit; altero cantilenas spirituales commendat, quibus se mutuo pii aedificent.” *Inst.*, III, 20, 32. 초대 교회의 음악을 취급하는 또 다른 귀절은 고린도전서 14:15절에 대한 주석이다: “Ex hoc tamen loco simul colligimus, iam tunc canendi morem fuisse usitatum inter fideles: quod etiam ex Plinio constat, qui saltem quadraginta annis post mortem Pauli aut circiter, Christianos scribit solitos fuisse canere antelucanos hymnos Christo. Nec vero mihi dubium est quin ritum iudaicae ecclesiae statim ab initio in psalmis fuerint imitati.” CO, XLIX, 522. 플리니의 언급에 주목하라. Cf. Bucer, *Grund und Ursach: Bucers Schriften*, I, 276.

32) 칼빈은 여기서 「고백록」, IX, 7, 11: Saint Augustine, *Confessions*, tr. by Vernon J. Bourke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53, 1966<sup>2</sup>), 272-73, 그리고 「철회」, II, II 등에서 나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33) “Et certe si ad eam, quae Dei et angelorum conspectum decet, gravitatem

여기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다. 교회에 가창(歌唱)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내가 맨처음 주님의 믿음을 찾았을 때 교회의 노래에 홀리던 눈물을 돌이켜 보고, 한편 지금도 부드러운 목청이 첩첩 장단을 맞추어 노래하는 것을 들을 때 가락보다 가사의 내용에 감동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관습이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와같이 나는 음악의 위험성과 그 유용성의 체험 사이에서 뒤뚱거리면서도(결정적인 의견을 말함이 아니지만) 교회의 가창 제도가 좋다는 점에 더욱 마음이 쏠리는 것입니다. 어린 마음이 음악을 통하여 경건한 정서로 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오나 내 경우에 있어 가사의 내용보다 곡조에 더욱 끌려갔다면 벌받을 죄를 지은 것으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노래를 아니 듣는 편이 나은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sup>34)</sup>

칼빈은 음악 자체내에 교화를 파괴시키는 어떤 잠입을 피하도록 균형 잡힌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음악이 제공할 수 있는 유익한 결과들을 억누르지 않는다. 칼빈은 어거스틴이 때때로 교회 음악을 음송(吟誦) 형식으로 제한시키는 아타나시우스의 관습에 우호적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음악의 가치들을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sup>35)</sup>

---

attemperatus sit cantus, cum dignitatem et gratiam sacris actionibus conciliat, tum ad excitandos in verum precandi studium ardoremque animos plurimum valet. Cavendum tamen diligenter ne ad modulationem intentiores sint aures quam animi ad spiritualem verborum sensum.” *Inst.*, III, 20, 32.

34) Augustinus, *Confessions*, X, 33, 50 (MPL 32, 800; tr. LCC, VII, 230f.); in Grout, 앞의 책, 29.

35) “Quo periculo se permotum fatetur alicubi idem Augustinus, ut interdum

칼빈은 계속해서 감정과 이해에 대하여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ex corde) 노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감정에 속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다른 이들을 격려하기를 바란다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순전히 외형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부르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바울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내면적으로 노래할 것을 명하였던 것 같이, 이것에 머물러 있기만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는 마음이 혀를 앞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양쪽이 결합되기를 바란다.<sup>36)</sup>

---

optarit institui morem ab Athanasio observatum, qui lectorem tam modico vocis flexu iubeat sonare, ut pronuncianti vicinior foret, quam canenti. Verum, quum reminisceretur quantam sibi utilitatem cantus attulissent, in alteram partem inclinabat. Hac ergo adhibita moderatione, nihil dubium quin sanctissimum sit ac saluberrimum institutum. Quemadmodum rursus, quicunque ad suavitatem duntaxat auriumque oblectationem compositi sunt cantus, nec ecclesiae maiestatem decent, nec Deo non summopere displicere possunt.” 같은 곳. 어거스틴에 대한 인용은 『고백록』, X, 33을 보라. 이 부분의 마지막 문장은 위의 책 131쪽에서 인용된, 교회에 부적합한 음악 사용에 반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다. 단순성에 대한 칼빈의 강조는 “단선을 성가”로 시편 부르가를 지정한 존 낙스의 제네바 예배서에서 채택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Maxwell, *Genevan Service Book*, 99를 보라. 영국 프로테스탄트들에게 보내는 베자의 서신(1566년 7월)에서도 똑같이 강조되고 있다. 위의 책 285쪽을 보라.

- 36) “Hoc ad affectum pertinet. Nam sicuti alios incitare, ita etiam ex corde canere debemus, ne sit externus duntaxat oris sonus. Quamquam non ita accipiendum est, ac si unumquemque sibi intus canere iuberet: sed utrumque vult coniungi, *modo corda linguas praeceant*.” Comm. on Col. 3:16; CO, LII, 125. 또 다시 칼빈은 “마음으로 노래하기”가 “입으로써 노래부르기”를 저지한다는 쾰링클리의 견해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Cf. Comm. on Eph. 5:18-19; CO, LI, 221; and Sermon, 38 on Eph. 5:18-21; CO, LI, 725-26.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인들의 노래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예술에 있어서 숙련에 관해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 있어서는, 교황 정치하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썽들이 오전(誤傳)되지 않도록 참된 이해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익한 소란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정당하게 노래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 요구된다.<sup>37)</sup>

찬양이 “부주의하고 정신없이 혹은 알아들을 수 없게, 마치 거위가 크게 소리를 질러대듯, ...그렇게 질러댈 때면”, 그것은 곧 성경 말씀들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sup>38)</sup> 여기서 칼빈은 음악을 영적 메시지의 단순한 시녀(ancilla)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밝힐 필요가 있겠다.<sup>39)</sup> 교화는 제 나라 말로된 텍스트와, 텍스트의 의미를 표현하고 또한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 그리고 적절한 표현 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37) “Sed quamvis loquatur de scientia artis musicae, requirit tamen in canendis Dei laudibus, veram intelligentiam, ne linguae tantum roboent ut scimus fieri in papatu. Requiritur ergo ad legitimum psallendum scientia, ne vano clamore, nomen Dei profanetur.” Comm. on Ps. 47:6-10; CO, XXXI, 470.

38) “Or ici nous voyons en premier lieu comment aujourdhuy Dieu est vilipende: car si on fait semblant de luy chanter louange, ce n'est sinon comme en hurlant, ...Mais l'Ecriture sainte est la profanee, elle est deschiree par pieces, voire falsifiee du tout. Quoy qu'il en soit, il n'y a ni attention, ni esprit, ni intelligence, car c'est assez que le gosier ait crie bien haut.” Sermon 38 on Eph. 5:18-21; CO, LI, 726. Cf. Comm. on 1Cor. 14:10; CO, XLIX, 520.

39) “Quand nous voulons magnifier le nom de Dieu..., que nostre coeur y soit dispose, et qu'il s'y accorde pour faire une bonne melodie...”: 시편 119편의 22번째 설교를 보라; See Edward Patte, 앞의 글, 12.

### III

이와같은 그의 생각으로 미루어 볼 때, 교회 내에서 기악(器樂)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의 반응은 충분히 감지된다. 그는 사무엘상 18장을 설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회들을 장식하고, 오르간들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고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스스로 믿는 것은 가톨릭의 의식을 흉내내는 그야말로 너무나 어리석고 부조리한 것이 될 것이다. ...필요한 모든 것은 마음과 입으로부터 또한 비천한 입에서 나오는 신적 찬미를 단순하고 순수하게 노래하는 것이다. ...기악은 율법시대에 관용되었는데, 그 때는 백성들이 유치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다.<sup>40)</sup>

칼빈은 그의 시편 92편 주석에서도 똑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4절에서, 그는(그 시편 기자) 노래하는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에게 더 곧 바로 언급하면서, 또한 그들에게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마치 그것이 본질적으로 필요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옛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의 초보적인 보조기구로서 유용했기 때문이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교회가 성년이 된 이 때에, 그것은 단지 복음의 빛을 감추어 버리는 것일 뿐이며, 우리는 과거의 율법시대의 그림자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기악을 사용하고 있는 교황주의자들이, 분별없고 부조리한 방식으로 남의 흉내를 내듯이, 상징적이며, 복음으로 끝나버린 구약 성경의 예배를 어리석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옛 백성의 의

---

40) John Calvin, *Homiliae in primum librum Samuelis* (Geneva, 1604), 370. 같은 책, 14쪽에서 재인용: see CO, Vol. 30, 254-300.

식 행위를 모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sup>41)</sup>

더구나, 그는 기악을, 상징적인 구약 성경의 예배의 “분별없고 부조리한 흥내내기”라고 부르면서 비난하고 난 후, 칼빈과 교회들에게 이 절대적인 제한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즉, 성경에 나오는 시편들, 또한 성시들(Psalms)만이 회중들의 찬송으로 사용하게 했던 것이다. 그는 시편 149편 주석에서, “악기들은... 이러한 유년기 교회를 위하여 독특한 것이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옛 백성들을 위하여 의도된 것을 어리석게 모방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sup>42)</sup> 그리고 그는 시편 71편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덧붙였다:

악기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우리는 반드시 알려진 말로써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분께 기도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의 불변의 법칙으로서 진술하고 있을 때, 성령의 명백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들로부터 추방되고 있다.<sup>43)</sup>

---

41)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Edinburgh, 1847), III, 494-495; CO, 10-11: “Quarto versu Levitas, quibus iniunctum erat canendi munus, proprie compellat, ut musica etiam instrumenta adhibeant: non quia per se hoc necessarium foret, sed quia utile erat rudimentum veteri populo. Neque enim citharam pulsari voluit Deus, ac si more hominum voluptatem caperet ex melodia: sed quia nondum advenerat maturae aetatis tempus,...quia quum exhibito Christo ecclesia iam adoleverit, evangelii lucem suffocant qui adhuc ecclesiam involvunt veteribus umbris. Unde colligimus, papistas musicis instrumentis non esse patrum imitatores, sed simias, qui umbratili legis cultu, cui finem attulit evangelium, stulte adhuc oblectantur, qua de re iterum aliis locis dicendum erit.”

42) 같은 책, V, 312, in Stevenson, 앞의 책, 15.

43) CO, Vol. 31, 662: “De publicis gratiarum actionibus loquor: quia etsi privatim non vetamur interponere musica instrumenta, a templis tamen manifesto spiritus sancti edicto arcentur, dum Paulus 1.Cor. 14, 13 nonnisi cognita lingua benedicere vel orare permittit.”



그는 다른 귀절에서 여전히 같은 취지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율법 아래 있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기악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 되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기 까지, 그같은 초보에 의해, 여전히 미숙하고 어린이들과 같은 수준에 있는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그분의 뜻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복음의 명백한 빛이 율법의 그림자들을 없애버렸으며, 하나님께서 더 단순한 형태로 섬김을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친 이 때에, 그 선지자가 자기 자신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요구했던 그것을 모방하는 것은 어리석고 잘못된 행위가 될 것이다. 이로부터 교황주의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이것을 전승함으로써 자신들이 대단한 흉내장이임을 보여 주었음이 명백해진다.”<sup>44)</sup>

칼빈은 공예배시 기악을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 본래의 뜻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곡조를 붙여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존귀하고 유익한 방법이라 생각하였다. 그는 사도들이 시편을 노래하는 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점과 음악이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 헌신의 열심을 불러일으켜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루터의 충고를 받아들여 개혁과 교회의 공예배 순서 중 모국어로 된 가사에 평이한 곡조를 붙여 모든 사람이 배우기 쉽고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시편을 노래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 클레망 마로가 다윗의 시편을 파리에서 프랑스식 리듬을 붙여 번역 출판하자 마자, 칼빈은 제네바에서 그의 교인들에게 이것을 소개하고, 평신도용 대중 음악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곧 프랑스 개혁과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편화되었다. 마침내 마로의 시편은 칼빈의 영향으로 프랑스의 개신교 예배에 채택되었다. 이 책

---

44)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III, 312, in Robert Stevenson, 앞의 책, 15.

은 매우 대중성을 띠고 있었기에 프랑스 개혁파 교회가 우세하게 되는 데 지대한 공을 끼쳤으며, 가장 극심한 형벌을 받을 때에도 이 시는 애송되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이와 같이 시편을 노래하는 것을 이단시하였다.<sup>45)</sup>

#### IV

이상에서 살펴보건대, 칼빈이 음악의 위력과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며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시키게 해주는” “보조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권면하고 있음을 본다.<sup>46)</sup> 그가 교회 예배에서의 기악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이미 언급했듯이, 기악 자체를 부정한다기 보다는 로마 교황주의자들이 음악을 악용해온 그들의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반발 심리에 기인하고 있음을 본다. 또한 그가 텍스트의 이해성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칼빈이 처한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그냥 칼빈의 주장만을, 예를 들어 교회 예배에서 오르간 사용을 금하는 것 등을 오늘날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비역사적 발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음 공해를 유발하며 다분히 기교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 교회 음악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16세기 한 종교개혁 거장의 주장은 음미해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

45) See *Warton's History of English Poetry*, Vol. 3, 164, 165; 그리고 존 칼빈, 「구약성경주석」(시편) 제10권,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편(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99쪽 각주 4번을 보라.

46) *Inst.*, III, 20, 31; *CO*, Vol.2, cols. 657-58.